

입주기업 지원, 역량 강화

바이오진흥원, Three Track 지원체계 운영 지난해만 우수 신규기업 9곳 발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진흥원)은 33개의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흥원은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창업기업 지원 ▲첨단바이오식품센터의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지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의 GMP 생산 인프라 활용 지원의 Three Track 지원체계를 운영해, 2021년에는 우수 신규 입주기업 9개사를 발굴했으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연구 생산 사업화 연계가 가능하도록 입주공간 이동 및 지원체계를 이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다변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성장 및 고용확대를 이뤘고 이 중 6개사는 전년대비 150% 이상 매출 상승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Three Track 지원 우수사례 기업 중, (농)(유)영인바이오는 2018년 창업해 진흥원의 창업어카데미 교육 수료 후 2019년 2월 진흥원에 입주해 순살계장, 새우장 반려동물 영양



제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전력을 다해 2020년 매출 6억4000만원에서 2021년 14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 성장을 이루었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마케팅, R&D인력을 총원해 2020년 9명에서 2021년 17명으로 전년대비 188%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강아지라면(한끼당당)을 출시해 2021년 고객감동 기업&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해외 바이어와 지속적인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해외 수출 실적도 기대된다.

또한 (유)씨엠에프엔비는 버섯활용 천연조미료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후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흡소핑 방송편로 개척에 집중하고 진흥원의 지원으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등을 활성화해 2020년 6억 8,400만원에서 2021년 9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 매출 성장했으며, 일자리 창출에서도 전년대비 4명을 추가 고용해 2021년 기준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올러 조직배양삼염수 추출원액을 생산하는 기업인 PID-코리아(주)는, 코로나19로 2020년 수출이 중단됐으나 비대면 바이어 미팅과 수출전략 다변화로 올해 17억100만원 수출을 달성했고 2020년 6억2,600만원에서 2021년 39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8% 매출 성장을 이뤘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5명을 추가 고용해 2021년 기준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입주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직접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은 10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범농협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전북농협 시너지 협의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농촌일손돕기·농업인 영농지원 동참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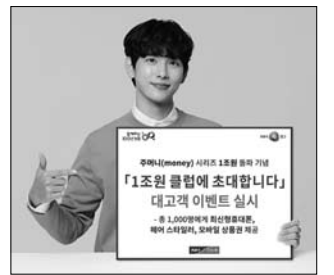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0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범농협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은행, 보험, 농협유통 등 범농협 소속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열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농협 발전에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재호 본부장을 비롯한 장경민 영업본부장, 박병철 노

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농촌일손돕기 등 농업인 영농지원에 전 계열사가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단계별 지역농축산물 제공, 탄소저감사업 동참 등 올해 전북농협의 핵심사업 추진에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 농축산물 소비 부진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범농협 임직원들은 농업인 영농지원 등 농업인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기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1조원 클럽 초대합니다'

농협 '주머니 시리즈' 판매 1조원 기념 이벤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모바일 전용상품인 주머니(Money) 4종 시리즈의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지난 7일 실시했다.

10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이번 실시하는 이벤트 1조원 클럽에 초대합니다'는, 총 1천명을 추첨해 최신행 휴대폰(1명)·헤어 스타일러(3명)·모바일 상품권(996명)을 증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31일까지 주머니통장, 주머니저금, 주머니정기적금, 주머니금리소액예금 중 1개 상품에 가입한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한편 '주머니 시리즈'는 농협상호금융의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고객이 직접 설정한 목표금액 달성, 잔돈 자동이체, 오픈뱅킹 이용 등 일상적인 금융 생활만으로도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김윤상 기자

전문, 신규 수출입기업 대상 경품 제공 이벤트... 6월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6월 30일까지 신규 수출입기업에 경품을 제공하는 2022년 신규수출입기업 반갑습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10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이벤트 대상 고객은 지난해 전북은행과 수출입 거래가 없었던 기업 중 이벤트 기간에 누적 수출입 거래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매출 수출입 최대 실적 2개 기업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1개 기업 앞으로 커퍼머신 세트 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내 대상 고객 조건에 해당 시 자동 응모되며 당첨 여부는 거래 영업점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고지된다.

이외에도 전북은행은 지난달 전라북도 외환 활성화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들과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며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JB뱅크앱, 홈페이지(www.jbbank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디지털 토양관리로 탄소중립 기여

농진청, '흙의 날' 맞아 오늘 온라인 학술 토론회
농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 핵심 과제 등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한국토양비료학회, 농민신문사와 함께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온라인으로 학술 토론회를 연다.

10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토양관리'를 주제로 농업이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업 분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는 다양한 토양관리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토론회 세부 주제로는 ▲농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탄소중립 시대, 토양의 역할과 과제 ▲배출권 거래제와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 ▲토양 유기탄소 디지털 지도 활용 토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양수분 관리를 위한 토양 센서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학계, 정부,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건강한 흙이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과 탄소 저감을 위한 디지털 토양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학술 토론회는 농진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rdkorea)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중계된다.

박병홍 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변화 시대, 토양 기능을 강화하는 디지털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건강한 농촌, 건강한 국가의 기반인 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기술 개발에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농촌 교통사고 예방 지원

농진청, 안전 반사판 부착 등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과 국토교통부(장관 노영욱)는 2018년 업무협약을 맺고 해마다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22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이달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과 농작업자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가 진 뒤 이동 중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사업내용으로 ▲안전 반사판 부착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고령자 야간 지팡이와 안전용품 지원 등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619개 마을에 1만6,421대의 안전 반사판을 지원해 부착토록 했으며, 1만6,60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올해는 안전 반사판 1,400개와 반사 띠를 지원할 예정이며, 야광 지팡이 400개, 교통안전 홍보물 2만부를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던 방식과는 달리, 한 개의 시군을 선정해 해당 시군의 모든 마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군 자체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별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통계를 고려해 충남 태안으로 선정했다.

한편 집합교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교통안전 홍보물을 적극 활용,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이다.

농진청 첨단농자재육성팀 강석원 팀장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촌지역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